

螢 嶺

1988

全州文化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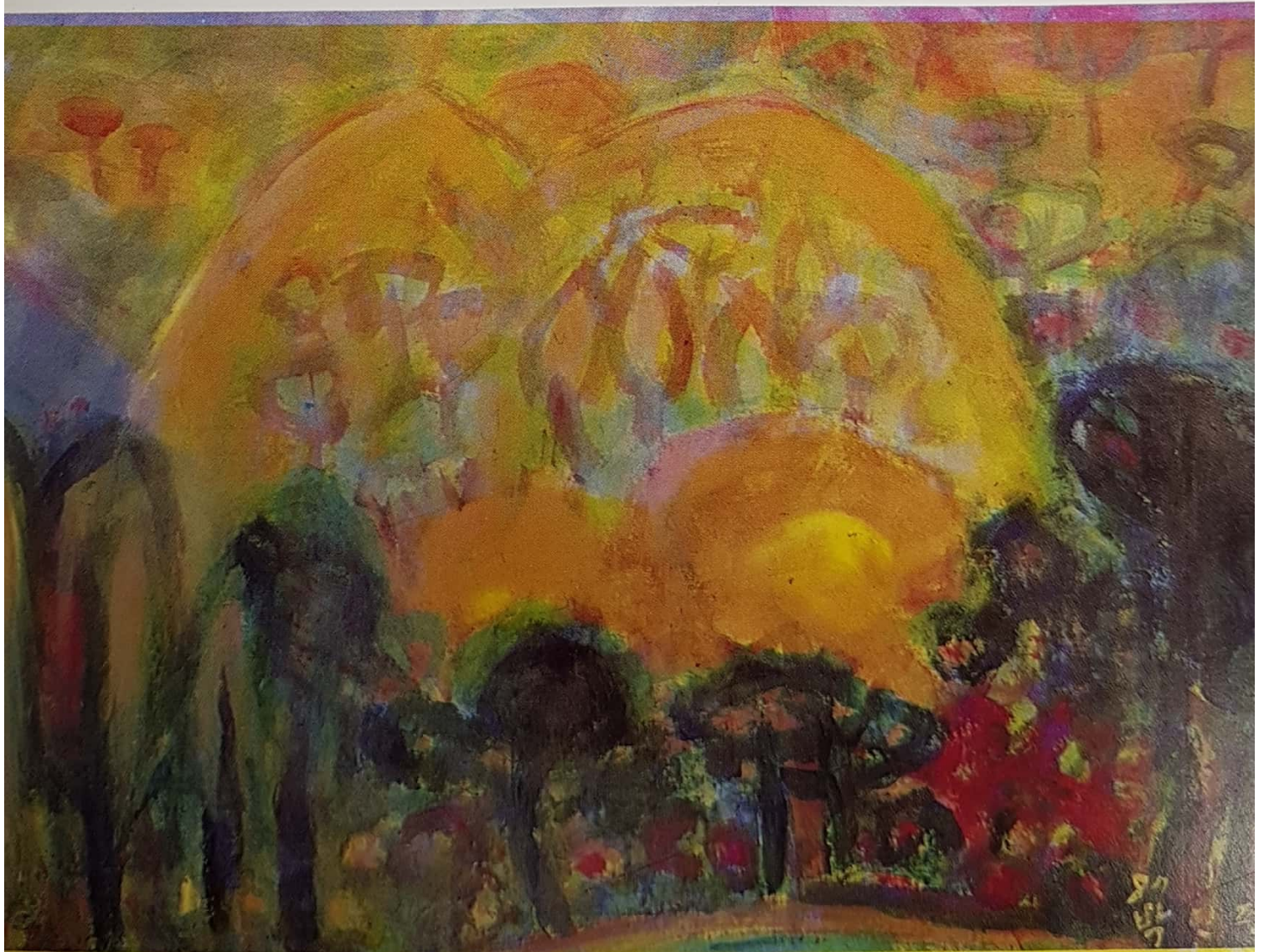
(文公部 登録番号 第ㄱ-962号 登録日字 1981. 8. 10 郵便番号 560-020 隔月発行)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靈 嶺

47

1988年 9 月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

8	卷頭隨想\「장사 풍속도가 변했구나」	張明洙
10	옛적 인정을 되찾는 마음	金光鎬

연중 특별기획・우리 옛 풍습찾기 시리즈 ③

● 사라진 옛 장사 풍습 ●

* 유통 구조

12	도시중심으로 방출된 구매력이 시장권 형성	吳泳模
19	상거래 물량의 커짐에 따라 출현한 어음	李邦煥

* 장사꾼 형태

26	1920년대의 남박장	趙炳喜
35	되박질에 마음 상하던 곳	崔根茂
42	장따라 찾아가는 多音多色의 장사꾼	卓 光
49	흘러오는 돈따라 문화행사도 출렁이고	金鍾鳴
55	팔도 사람이 모이는 난장	楊福圭
60	과거길의 선비들 초요기 하던 곳	汜錫圭
66	5일장 장터는 크나큰 곡마장	趙玉英
73	살림살이의 눈금을 재는 주막 이야기	黃吉顯
80	춤고 배 고프던 나무전거리	柳章友

* 상가의 변천

84	아늑하고 살기 편한全州	印正得
90	李鎬堉칼럼 / 差惡之心	李鎬堉
92	全州風物記⑦ / 全州川邊	宋榮相

□ 時 論 □

96	바로보고 바로가는 삶	金心元
99	統一殿의 歷史 壁畵	柳基洙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이심이라.
〈요한 1서 제4장 7~8절〉

* 編 · 輯 · 後 · 記

□...문화원 사무국장겸 노령 편집장으로 일해온 조규화씨가 7월 1일자로 퇴직했다. 삼성당출판사 이리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장우씨를 다시 모셨다. 속사정을 잘 아는 분이어서 문화원 운영이나 노령 발간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기대된다.

문화사업은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한 운영을 내다보게 되어 반갑다.

□...지난 46호의 창간 10주년을 기념한 자축연을 가지려고 준비했었는데 50호가 나오는 때에 그동안의 필자와 광고 협찬자 그리고 관계인사를 초청하기로 했다.

사실 1천여명의 초청인사를 수용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연기되었음을 공지사항으로 밝히는 바이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집필해 주신 제현에게 감사를 드린다. 노령의 밝은 운영이 되면 원고료를 드릴 수 있으리라 하고 자위한다.
〈宋〉

蘆 嶺 第 47 號 1988 年 9 月

1988 年 8 月 25 日 · 印刷 / 1988 年 9 月 1 日 發行

《 非 賣 品 》

發行人 · 金 光 鎬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清

文公部 登錄番號 · 바-962號 登錄日字 · 1981年 8月 10日

發行所 · 社團 全州文化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58의 4 ☎ ⑥ 7500

印刷所 · 鮮明印刷社 ☎ 84-0030 · 84-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103	全北禮讚論 / 광활한 평야에 풍성한 癡心	安先求
105	고향을 생각한다 / 당신의 후덕한 품에 안기고 싶어	李惠淑
110	紀行文 / 淳昌 龜尾紀行	柳在泳
109	畫家가 가본 내 고장 山河 / 남고산성	李方雨
118	醫 境 / 대머리 약	柳承國
126	生活과 宗教 6 / 연꽃 같은 삶	金榮錫

* 主 題 있 는 散 文 *

120	스승의 마음 / 진정한 마음을 이어주는 제자	趙慶得
121	제자의 마음 / 제자의 도리 다했는지 반성	金容在
122	나의 교우 / 화합의 극치가 참다운 우정	林明煥
123	나의 취미 / 고요한 밤에 먹을 갈고	崔欄周
124	좋은 글귀풀이 / 狐白裘	柳豐淵
126	우리말 우리글 / '배추'의 어원	崔昌烈

詩

128	山이야기(2)	朴亨輔
130	어떤 피서	유승식
132	하제 풍경	李時淵
134	나팔꽃	金彩玉
136	復活의 노래	李熙讚

수

필

138	구두 집는 아저씨	강화숙
139	Mr. 여자	朴永喜
142	순대국집의 삼총사	朴珍秀
144	음악이 있는 찻집	송영자
146	카타리의 추억	李化郁
148	춘향골 P식당	李漢基
150	친지를 얻은 기쁨	崔光涉
152	人生 단골집 Y원장	徐希周

155	꿈뜨 / 특효약	崔基仁
160	*續「나의 文學 60年」 23 / 海剛日記抄	曹圭華
164	편집후기	

● 사라진 옛 장사 풍습

* 장사꾼 형태

과거길의 선비들 초요기 하던 곳

范 錫 圭

〈神父 · 해성 학원상임 이사〉

옛 것을
알고자 할 때
어려운 것은
역사 유산보다
향토인의
생활문화.

역사는 시(詩)다”라는 카라일의 말이 있다. 그의 말은 폐허가 되어 전설처럼 전해오는 유적지에서 느끼는 말만은 아니다. 지금은 멀고 먼 옛일 같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 우리와 한 시대를 살았던 선배들의 삶터와 그들이 살아 오며 걸었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정감은 매한가지다.

사실 옛 것을 알고자 할 때 정작 어려운 것은 문화재라는 역사적 유산보다 향토인이 일상 살아왔던 생활문화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어떤이는 말하기를 “인사(人事)를 논하려면 먼저 지리를 구명(究明)하라”고 하였지만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그게 어려워진 것은 개발이다. 근대화라 하여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리둥절하게 변하고 있고, 또

먹고 사는데 상관없는 일이라면 별관심을 두지 못하는 빠듯한 생활의 탓도 있겠다. 그러나 정작 변한 것은 우리의 생활환경이다. 이전처럼 생활환경이 단순한 시절이라면 어른들이 아랫사람에게 고향에 대한 사담(史談)이며 자신들이 살아온 주변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있으련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하지만 근본을 따진다면 향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데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향토에 대한 이야기는 고향에 뿌리를 박고 살아 온 노인들에게서 들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떡전거리만해도 그렇다. 《전주시사(市史)》의 〈지리편〉이나 전주시가 간행한 《우리고장 전주》의 〈동(洞) 마을의 유래〉에는 떡전거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조사자 역시 입전으로만 들어 오던 〈떡전거리〉의 유래를 아는 제보자를 찾고자 그 거리를 답사하여 수소문 했지만 알만한 노인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또 신흥주택지가 되어서 주민들 역시 도움될 제보자는 못되었다. 그래서 토박이들이 살고 있는 인접 마을인 서신동의 고사평, 감나뭇골등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마을 노인들이 서신동 동사무소 곁의 양노당에서 소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10여명의 노인들이 자기집처럼 쉬고 있었다.

떡전거리는 어디를 말하는가. 떡전거리의 주민이나 서신동 양노당의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고속버스 종합터미널 앞 기사식당 골목에서 종합경기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떡전거리슈퍼마켓→오성연립주택→떡전거리 방앗간에 이르는 길을 두고 말한다.

떡전거리의 유래는 이 거리에 떡장수들이 전을 벌렸던 거리여서 그렇게 불렸다. 한글학회가 펴낸

떡전거리는
고속버스터미널
에서 종합경기장
가는 길목.

떡전거리가
오래 알려진
것은 한양
가는 길목이기
때문.

《한국지명총람》〈전주편〉(하, 1981. 355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떡전거리는 전에 서울로 가는 옛 길이 술정이를 거쳐 이곳을 지나게 되어 떡장수들이 많이 모였고 또한 맛 좋기로 이름났다함.” 제보자들이 들려 주는 말은 사람마다 구구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입담 좋은 이야기꾼이 만들어 낸 말이겠지만 옛날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던 선비가 이곳에서 떡을 사먹고 갔는데 과거에 급제하자 훗날 그 선비가 떡전거리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떡전거리로 이름이 오래 알려진 것은 한양 가는 길목이었던 까닭이다. 서신동 노인정 노인들은 판소리의 고장사람답게 《춘향전》의 한 대목에 이 거리가 등장한다고 일러 준다. 하지만 춘향전의 어떤 본(本)에도 떡전거리가 나오지는 않는다. 노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전주를 나오건 들어가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한다고 확실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여 전라어사로 소임받고 전주감영으로 잠행하는 과정에 전주 진입로가 중머리조로 나온다. 이몽룡은 여산을 거쳐 “통새암(봉동면 후암리 통정), 삼례 숙소하고, 한내(삼례 후정리 남쪽으로 흐르는 내) 주엽쟁이(옛날 한내가 있던 마을), 가리내(팔복동 추천) 심금정(덕진동 덕암리) 구경하고, 숲정이(진북고등공민학교 부근), 공북루(태평동 파출소 뒤) 서문(서문교회 부근)을 얼른지나 남문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운운)” 여기에 더 보충한다면 심금정에서 숲정으로 오는데는 사평리(법원부근)를 거쳐 떡전거리를 지나서야 숲정으로 갈 수 있는 옛길을 서신동 노인정 노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팔순 노인들은 어렸을 적 이 거리의 모습

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두막집 몇 채가 쓰러져가고 있었고 주변은 숲으로 우거졌었다. 그 숲은 숲정이라고 연이어졌는데 숲정이는 해성중고등학교 부근만 아니라 숲정이 천주교회 진북고등공민학교 일대를 두고 말한다. 숲정이에 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 잡목이 우거졌었다. 떡전거리나 숲정이의 숲이 없어진 것은 종방(鍾紡, 오늘의 삼양사)이 생기면서 이 회사가 나무들을 다 사들여서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전주에 떡전거리가 한 곳만은 아니었다. 《한국지명총람》(전주편) (하, 357 쪽)에 보면 전주시 삼천동 2가 쌍자리 남쪽에도 있었다. 이곳은 완주군 구이면 중인리와 용북리로 가는 갈림길로서 나그네를 대상으로 떡장사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도 떡전거리라 하면 으레 전자의 거리를 두고 말하는 것은 그곳이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까닭이다.

어쨌거나 떡전거리는 전주를 나와 한양으로 가거나 전주를 거쳐 아랫녘으로 가는 길손들이 요기로 떡을 사먹던 곳이다. 떡전 역시 물건을 파는 전(廛)이었다. 그러나 전주의 4문밖에서 정기적으로 장이 열릴 때 장꾼을 대상으로 벌리던 전들과는 달리 길손들을 대상으로 늘 열고 있는 떡집이었다.

길손들의 요기꺼리라면 주막집의 막걸리도 한가지였다. 그러나 술을 즐기지 않거나 술을 못마시는 사람에게는 떡보다 나은 음식이 없었다. 떡을 얼마치 살것 같으면 떡국물로 주는 된장 씨래기국이 푸짐해서 몇푼 어치만 사먹어도 몇십리는 걸을만 했다. 길손의 신분이 아무라면 어떠하랴. 시장한 길손이 떡값만 있다면 모든이가 편안히 들러가는 곳이었다. 떡전거리는 길손들이 가볍게 쉬어 가는 정자나무 그늘같은 휴식터였다. 길손들은 세상 돌아가는 온갖

떡전거리는
길손들이
가볍게
쉬어 가는
정자나무
그늘같은
휴식터

소문과 정보를 풀어 놓고 바람처럼 떠나가면 그만이었다.

떡은 시장한 길손의 요기꺼리였지 밥은 아니었다. 그러나 떡집주인은 낮에 떡을 다 팔지 못할 때 밥 대신 떡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떡집은 주막집과 달리 길손들이 유숙하는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세부득이 할 경우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했고 그길손 역시 주인을 따라 팔다 남은 떡으로 요기하고갈 수 밖에 없었다.

춘정에 얽힌
일화
철종 임금과
전계군의
이야기.

떡집에서는 더러 춘정(春情)에 얽힌 일화도 있었다. 그런 실화를 든다면 철종 임금과 그의 아버지 전계군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순조 30년(1830) 9월 어느날이었다. 전계군은 친한 친구가 죽어서 고양읍에서 장례를 지내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홍제원에 이르러 별안간 쏟아지는 비를 만났다. 그곳은 색주가였지만 술을 못먹는 길손들을 대상으로 파는 떡집들이 많이 들어섰다. 날은 어두워지고 비는 더욱 장대같이 쏟아지자 진퇴양난이었다. 그가 추녀 밑에서 비를 피해 있던 집은 염과부의 떡집이었다. 이런 딱한 처지를 염과부의 20여세된 딸이 내다보고는 전계군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청했다.

방안에 들어온 그는 시장기가 심해서 식은 밥이라도 먹을게 없는지 물어 보았지만 가난한 과부의 집인데다가 팔다 남은 떡을 처리해야 하니 저녁밥이 있을리 만무했다. 어쩔 수 없이 떡이라도 청할 수 밖에 없었다. 옷방에 있던 처녀는 소반에 떡을 바쳐 들고 들어와 앞에다 놓았다. 마침 염과부는 이웃집으로 방아를 쪼려 갔다가 비에 갇혀 오지 못하고 있었다. 전계군은 고마운 마음씨의 소녀를 보는 순간 감전된듯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처녀는 모야무

지(暮夜無知)에 일을 당했지만 그녀 역시 चु심
발동해 몸을 주고 말았다.

이튿날 전계군은 떠나면서 강화에 귀양살이하는
자기 신분을 밝히며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처녀의 배는 점점 불렀다. 그래서 어머니
에게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염과부는 강화에 유
배되어 사는 이서방을 물어 물어 찾아 갔다. 그리고
만나서는 천륜을 찾아 주러 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전계군의 부인 최씨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별하면 데려다 키우겠노라 다짐해 보냈다. 이렇게
낳아 데려다가 키운 것이 훗날의 철종임금이다. 그
러나 그의 생모는 색주가로 타락되었다가 죽으니,
홍제원 앞산에 묻었다 한다.

전주의 떡전거리라 해서 이러한 चु정에 이루어진
일화 하되쫘 없으란 법은 없을 것이다. *

崔在三 隨筆集

- 旅 行 者
 - 人間勝利의 길
 - 人間의慾望
-

● 사라진 옛 장사 풍습

* 장사꾼 형태

5일장 장터는 크나큰 곡마장



趙 英 玉

〈全羅北道 教育委員〉

향시는
일일왕복이
가능한
성·읍시와
교통의
중심지에서
열림.

시골의 장날은 향토제와도 같다. 장날은 읍 동네의 소식도 듣고 여인네들이 한탄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한다. 지방도시에서 행해진 소위 향시(鄕市)는 대체로 일일 왕복이 가능한 성읍시와 교통의 중심을 택하였던 것으로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고 주시(週市)의 형태를 가진 것이며 원래 주시는 보통 의미로서의 시장인 것이다. 그 장소를 장시(場市), 장(場), 시장(市場), 또는 시장(市上)이라고 불러 왔으며 월 6회 개시하는 “5일장”은 주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조 후기에는 전국에 1,000여개소가 있어 봉건 하층부(封建下層部)의 중요한 상품 유통기관으로 되었다. 시장 조직의 기능은 비교적 미약했으나 장

날이 되면 각자의 생산물을 갖고 와서 매매하는 것으로 당시 일반적 경제상태로 보아 자급자족의 단계를 벗어난지 얼마 안되는 때이라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판매자인 동시에 구매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쌀과 포(布)로 물품 화폐로 사용했다. 도시를 중심으로 전업적인 상인이 있었으니 그들은 대체로 공동체적인 행인 단체를 형성하여 시장과 시장을 순역하는 행상인이었다. 그들 행상중에는 각지의 특산물을 휴대하여 원격지(遠隔地)에 행상하던 대상들도 있었고 소지역내의 각호를 개별 역방(歷訪)하던 부상(負商) 등도 있었다. 북짐장사(裸商)와 등짐장사(負商)로 보상은 직물 금, 은, 화장품 등의 잡화를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다녔고 부상은 도기, 가구, 소금, 담배, 어류, 해초류 등을 지게에 지고 다니는데 도둑 등의 여러가지 수난을 막기 위하여 단결심이 강하였다. 이 단결력이 때로는 정치에 이용되었으니 병자호란 때 군수물자와 식량을 포위되어 있는 남한산성에 운반해 주어 그 공이 컸다. 시골의 장날은 향토제 와도 같다. 농촌의 어린이들에게 환영받던 튀밥장수, 농촌에서 수수목으로 비를 매어 시장에 나온다. 장터 한 귀퉁이에서 “토정비결”을 보는 노인 돈주고 쌀을 사오면서 쌀 팔아온다 고한다. 장은 소재지에 따라 경향지(京鄕市), 읍내시(邑內市), 부내시(府內市), 주성시(州城市), 성외시(城外市)로 구별되었고 그 위치에 따라 서문시(西門市), 동문시(東門市), 남문시(南門市), 상시(上市), 하시(下市)로 구별되었다. 그리고 시장의 상인으로 일정한 장세(場稅)를 징수하였고 장감고(場監考)라는 관리가 있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쌀과 포로서
물품화폐로
사용.

1. 셋골나이 (나주)

칠백리 길을 구비 구비 돌아 흘러 내려온 영산강을 꼭 보듬고 있는 나주 땅은 무명으로 베짜는 이름난 고장이라 큰물지면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가물면 끝없이 속을 태워야 했던 이 고장의 여인들은 솜씨가 좋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올이 고운 무명베를 짰다. 옛날부터 나주 셋골나이는 12새 포목이라고 하여 최상품으로 쳤다. 실을 찾는 손 끝에 혼이 들어 있다고 믿었고 그런 신비스러운 마음이 딸에서 딸로 전하여 내려왔다. 셋골나이 생산은 왕성 했다. 원래 셋골은 마을의 이름이고 나이는 길쌈의 다른 이름이다.

길쌈은
소일거리가
아닌
삶의 의의를
찾는
여인들의 길.

셋골나이가 무명베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좋았던 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길쌈은 소일거리가 아니라 삶의 의의를 찾는 하나의 의식이었을 것이다. 땅마지기나 있는 집에서는 베틀 하나씩은 꼭 있었다. 물레와 베틀을 여러개 갖고 있는 집도 있어 아낙들은 몰려다니며 길쌈 품앗이를 했다. 짖는 아낙은 짖고 매는 아낙은 매었다. 장날에 대기 위해 코피를 쏟으며 며칠밤을 세워서 베를 짜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밥을 못 먹었을 것이다. 즉 옛날부터 여자가 남자보다 일을 더 많이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옷감 가운데 여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된것은 없었으니 조선 산업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중요했다는 얘기가.

2. 성시를 이루는 한산 모시장

필자는 50여년 전 언니의 혼수 마련을 위하여 한산을 가시겠다는 어머니를 따라 황등에서 기차로 군산에 가니 장항가는 배를 1시간 기다려야 했다. 장

항에서 시천을 거쳐 한산면을 찾은 일이 생각난다. 모내기가 한창인 막막한 들판 위로 초여름의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녹음이 짙어가는 나지막한 야산이 지평선 끝에 길게 누워 있었다. 벼짜는 여인의 모습을 처음 본 것이다.

시골 사람들이 비싼 모시옷을 장만할만큼 여유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한산모시는 생산자와는 무관한 사치품이기 때문이다.

“왜유 한벌씩은 다 장만했는데 손질하기 귀찮으니께 장롱속에 처박아 두고 있는게벼유 ”

모시장은 새벽 4 시경에 열어서 날이 밝기 전에 파장을 한다. 모시가 햇볕을 쬐면 말라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쯤 되면 장꾼들이 하나 둘씩 모여 시장이 되며 평소에는 문을 굳게 닫아두었다가 장날에 문을 여는 구차스러운 전포들이 다닥다닥 붙여 있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전포를 사이로 난 골목에서 모시장이 열리고 있다. 골목 위로는 전깃줄이 열기설기 거미줄처럼 걸쳐 있고 거기에 백열전구가 주렁주렁 매달려 모시장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정의 열기는 전구의 불빛보다 강렬했다.

한산의 여인들은 시장거래에 많이 받고 싶어 “가물어서 못 컸어유 일년에 세번 벼쥬 초 여름에 한번 한 여름에 한번 또 추석쇠고 한번 껍질을 벗겨서 모시장에 내다 팔어유 여그서 일년에 돈 얼마가는 남쥬 어휴 정신없어유 한길이 넘게 쑥쑥 크니께 년덜머리가 난다니깨유 ”

어느 여인은 “여그는 시어머니가 짚고 여그는 며느리가 짚는디 뭘 그러 ”

“무슨 놈의 모시가 이리 굵고 뽀뽀혀 ”

“이놈 모양, 광 길구 자 제대로 된놈 찾아 봐유

모시장은
해가
뜨기 전에
파장을 한다.

눈을 까 뒤집고 봐도 없을거유 ” “ 기계모시에 델 수 있남유 와서 만저 봐유 노긋 노긋하지 ” 모시베의 값이 품질에 따라 암암리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간꾼의 생트집과 생산자의 과대 선전으로 실랑이를 펴는 것은 그래야 흥정이 제대로 붙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무미건조하게 거래되면 쌍방이 뭔가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흥정이 되면 몇푼이라도 가감이 있기 마련이며 그 몇푼을 위해서 서로 끌고 당기는 거래의 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삼 나무의 근면성

麻科의 1년생 경작 식물로 줄기 껍질의 섬유는 베와 삼실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시 농촌에서 환영 받은 섬유다. 일찍부터 직조기술이 발달했으며 순박한 농촌 아낙들의 손길에 의해 훌륭한 생활 또는 생산 양식으로 가꾸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녀자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이 길쌈에 사용되는 기구나 솜씨가 전래되고 개발되던 당시의 원형 그대로 수백 년 내려오게 된 원인인 것은 사실이다.

실용성 있는
삼베는
우리 민족의
혼과 같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삼베는 베짜기가 바쁘게 재촉을 받는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연로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수의를 미리 장만해 둔다. 실용성 있는 삼베는 우리 한 민족의 혼과 같다.

삼베라면 마의태자(麻衣太子)를 잊을 수 없다. 근면 절약 정직 정의를 대변하기도 한다. 한여름 논에 나가보면 삼베옷을 입는 농부는 바지 가래를 툭툭 몰아올리고 논안에서 땀을 펄펄 흘리며 일을 한다. 세탁에도 강하고 손질도 쉬워서 즐겨 입게 된다.

4. 누에 고추에서 나온 비단

누에고추에서 비단 실이 줄줄 나온다. 옛날에는 고추에서 나온 비단을 명주라 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된다. 즉 동물성 섬유 이기에 부드럽고 맵씨가 있다. 각색의 물감을 드려 만든 옷은 곱기도 했다. 머리에 보따리를 얹고 신나게 다니는 행상은 희망적이다. 큰 대문집만 찾아 다니며 혼수감으로 환영을 받는다.

홍색 명주이불에 녹색 깃달아 마련해 주면 첫날밤 아들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쑥쑥 잘 자랄거유 하며 사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그 뿐인가 딸 아기 얼굴색이 뽀얗고 예뻐서 남색 치마에 노랑 저고리 입으면 신랑이 반하겠네 하며 녀두리 부리며 기필코 팔고 가는 데 쌀이나 잡곡으로 받아가기도 한다.

홍색
명주이불에
녹색 깃달아
첫날밤 갖으면
아들 낳아

5. 이조말기 농촌직물 수공업인 싹수

싹수가 노랬는지 파랬는지를 딛고 자본주의가 싹이틀 무렵에는 항상 직물 수공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16세기 어느 여류시인의 시에

밤 늦도록 쉬지 않고 베를 짜노라니
베틀소리는 삐걱삐걱 차갑게 울리네.
베틀에는 베가 한필 짜여졌지만
뉘집아씨 시집갈 때 혼수하려나

손에다 가위 잡고 옷감 잘라내려면
밤도 추워 열손가락 곱아온다네
날을 위해 시집갈 옷 짜고 있지만
해마다 나는 홀로 잠을 잔다오

가난한 농촌여성의 삶이 힘겹고 쓸쓸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 준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을 즐겨 입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농촌 수직물은 속적삼 고쟁이 속옷 또는
안감으로 쓰여져 우리의 길쌈은 생산 의욕을 억
압했는가 하면 임진왜란 때 직조 기술을 배워간 일
본이 구한말 무렵 면직물 공업을 일으켜 우리나라
를 원료, 생산지 및 소비지로 전락시켰고 농촌 직물
수공업에서 근대적 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뿌리채 뽑았던 것이다. *

李鎬繕 · 鞠明子 夫婦 칼럼 隨筆集

따갑게 미소롭게

金東必 隨筆集

○ 하얀 대화

○ 풀잎의 祝祭

● 사라진 옛 장사 풍습

* 장사꾼 형태

사람살이의 눈금을 재는 주막 이야기

黃 吉 顯

〈詩人 · 전주여상 교사〉

1

견 강한 사람은 병원이나 약방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건전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술집을 찾기 마련이다.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리 /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나그네가 지났던 옛마을은 집집마다 농주(가양주)를 빚어 놓고 목이 마를 때, 심신이 고달플 때 시장끼가 감돌 때, 한 사발을 푹 떠서 들이키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 일하는 기쁨을 만끽했던 것이다.

그러나 출타시에는 더구나 한양으로 벼슬길을 찾아 떠날 때에는 메투리를 얹어맨 개나리꽃짐을 등에

주막은
쉽터로
안성맞춤.

걸치고 몇백리 몇 천리고 걸어야 했던 때는 종아리에 알배인 노독을 풀고 갈증나는 목을 축여야 했던 곳, 낮선 이웃을 만나 웃음 띤 눈매로 정을 나누던 그 곳은 주막(술집)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곳은 어느 동네에서 외떨어진 길가 외톨어진 모퉁이 혹은 고갯마루에 먹고 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오두막 술집이 있었고, 길을 따라 이어진 주막과 주막의 거리는 십리, 이십리 또는 삼사십리쯤 떨어져 있어 걸다가 한참 쉽터로는 안성맞춤이었다.

2

〈술독을 끌어당겨 스스로 잔을 들고/유유히 남산을 바라본다〉라고 한 오류선생(五柳先生)의 초월과 달관의 술은 서민들의 그것이 아니어서 노동의 애환이 서린 가양주가 아니라 한 선비의 여흥을 돋구는 보양주였을 테지만 나그네의 길가 주막집의 술은 주모의 정성이 듬뿍 담겨 빛어진 막걸리나 약주이었으며 농민들의 땀의 결실인 밀로 잘 띄운 누룩과 기름진 술밥에 바윗틈에서 솟아나온 그 맑은 물을 배합하여 빛은 술대접에 서린 주모의 인정어린 모성까지 어울어진 한 사발을 마시고 한참을 쉬는 데는 기름진 안주가 필요 없었다.

얼근한
길동무를 만나
구수한
이야기는
백리를 십리로.

〈한 잔 먹새그러 또 한 잔 먹새그러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그러〉와 같은 향락적 취흥을 위한 술이 아니라서 된장에 고추, 고추장에 마늘 한쪽이면 사람살이의 매운맛, 단맛, 짠맛, 짭은맛, 짜릿한 맛을 감지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끈한 된장국물이나 콩나물국 아니면 깍두기, 김치국이 곁들이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얼근한 길동무를 만나 걷는 구수한 이야기는 백리를 십리로 단축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3

〈주막도 비를 맞네／가는 나그네／쉬어갈 줄 모르라／한 잔 술을 모르라〉라고 노래했던 그 때만 해도 천형의 시인에게는 주막에도 들어가 쉴 수 없는 한이 서리고 애화가 맺힌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었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줄곧 발걸음을 옮겨야 백여리밖에 갈 수 없었던 때에는 도보의 사막에 갇든 오아시스가 주막이 아닐 수 없었다.

가다가 노자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주막에 머물러 땀나무를 굵어 모아주거나 장작을 패주는 등 집안일을 도와주고 며칠씩 먹고 쉬며 노자를 얻어 갈 길을 재촉하기도 했었다.

어떤 덜머리총각은 그의 튼실한 체격과 미더운 심성이 주모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웃에서 자란 복실한 처녀와 가연을 맺게 되어 행운을 일깨운 일인들 어찌 없었겠는가?

그런가 하면 주막집에서 잠을 자다가 무심한 게 잠이라서 허리에 찬 전대를 도둑맞고 어찌할 수 없이 터져 나온 애젊은이의 한숨인들 어느 하늘에 숨길 수 없는 애짙은 일인들 없었을까?

이렇듯 길고, 멀고, 애달픈 길을 살아야 했던 때에 있어서의 주막은 나그네의 이미지를 오롯하게 간직한 한 통의 필름이요, 나그네 길을 걷는 인생살이의 단면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4

새벽종이 울리는 새마을 덕분에 잘살게 되면서 그 애수에 젖은 그 고갯마루거나 외동떨어진 마을 모퉁이의 그 주막은 있어야 할 까닭을 잃어 버렸다.

주막에 들어가
쉴 수도
없었던
한 많은
때도 있었고.

마을마다 시내(군내) 버스가 운행되고 직행버스가 고을마다 넘치며 고속버스가 번창하여 휴전선 아래의 일일생활권이 형성되면서부터 객수와 낭만이 뒤엉킨 주막에서 쉬어야 피로도 없어졌지만 월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새마을에 직행하여 새마을 구판장을 찾으려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곡으로 대량 빛은 주조장의 막걸리와 에틸·알콜을 희석한 소주가 메마른 인정을 불태워 더욱 실리를 북돋우기 때문이다.

옛 사랑방의
호의와
인정을
어디 가서
찾으랴?

그리고 마을마다 먹을만치 사는 집에 마련된 사랑방도 따라서 사라졌다. 옛날에야 나그네의 길이 주막까지 이르지 못하고 저물면 마을에 들러 그 사랑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고 주인댁의 호의로 요기를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길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요즈음에는 그만한 인정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으랴? 물론 그럴 필요도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없게 되어 사철 꽃피고, 독성귀가 나오고, 과일이 풍성하여 철 없는 그 철에 맞는 미각을 자주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석식품의 범람으로 주부들의 손맛 어린 반찬을 대하기 힘든거나 다름없이, 플라스틱 바가지를 물함지에 얹어 놓고 아무리 멋지게 두들겨 보아야 옛날 바가지의 구수하고도 유수한 장단이 흘러 나올지 만무하듯이 말이다.

그대신 도시에서는 밤늦도록 맥주와 양주 <고고>에서 <다벗>에 이르는 육체의 향연이 새벽을 아쉽게 하고 있음에랴.

5

전주의 약주는 그 맛이 은은하고 감미로와 정종

을 능가했다. 서울을 비롯하여 외지의 손님이 전주에 오게 되면 으레 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을 즐겼지만 또한 정종(청주)을 사양하고 전주약주를 즐기곤 했었다.

삼백집 욱쟁이할머니가 참나무숯불에다 끓인 콩나물국밥과 모주는 밤새도록 뒤틀린 뱃속을 푸는데 어떤 약보다도 효험이 컸었고 일심옥의 비빔밥은 왼손바닥에 올려놓은 뚝배기를 빙빙 돌려 오른손으로 잡은 숟가락을 세워 고정해 채 비비는 그 솜씨가 손님들의 입맛을 더 돋구었으며 백도극장(아카데미) 옆의 초가집 약주는 한여름 등에서 줄줄 흐르는 땀을 식혀 주는데 인색함이 없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전주에도 술집은 많다. 그만큼 새벽부터 새벽까지 술꾼도 많다. 우리 같은 서민은 고급술집에는 드나들 수가 없다. 호주머니 사정도 그렇지만 미적지근한 인정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기가 인격이 돈격으로 둔갑한 세상인데 너는 무엇을 주저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도 받았지만 사람의 일은 반드시 돈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도 술집 아주머니의 손맛이 살아있고 그 순박한 얼굴의 잔주름에 따스한 인간의 체온이 스며 있는 것은 그래도 막걸리와 콩나물국밥을 주로 파는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집이다.

술꾼의 입맛에 맞는 안주를 골라 주는 버드나무집(지금은 능수나무집)이라거나 아무런 욕심도 근심도 안으로 새기고 언제나 그냥 대해주는 풍년집이라든가가 번두리에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찾을 만한 술집이라고나 할까?

남원 춘향집이나 민속촌의 술집처럼 도자기 술그릇에 조롱박잔을 이용하여 옛스런 맛을 본뜬 토담집

욕쟁이할머니가
끓인
콩나물국밥과
모주.
일심옥의
비빔밥.
백도극장 옆
초가집의 약주.

이 있으나 젊은 대학생들이 경영하고 있어 아무리
노소동락이 술과 연관이 깊다고 하지만 나이에 걸맞
지 않은 분위기는 발길을 돌리게 한다. 다만 젊은
제자와 오랜만에 만날 때에는 그를 위한 장소로 아
량을 베풀어도 좋을 것이다.

밤 11시 이후의 귀가길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하다.
이름도 요정집 이상으로 다양하고 차림표도 고급스
럽게 포장을 장식하고 있다. 그 안의 술꾼은 청춘남
녀, 데이트하다. 목을 축이거나 시장끼를 면하는 장
면이 많다. 그러나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김
밥이나 국수로 간식을 하는 그런 애쓴이의 얼굴도
띄어 반가울 때도 있다. 그러나 밤공기만큼이나 사
늘하고 암울한 가운데의 그 아주머니의 수입이 예상
밖이어서 시간 낭비가 입맛을 쓰디 쓰게 만들 뿐
이다.

6

산에 왜 가느냐?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대
답했다지만 술집에 왜 가느냐? 하면 술집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요새사람
몸모양에
철저해
건강법에
술도 마셔.

요새사람은 자기의 몸모양에 철저하여 <빈혈방지,
간보호 및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건강식품>이란 막걸리 선전 벽보를 붙여
놓고 있으나 그 탁한 술을 선호한 주객은 점점 줄
어지고 그나마 금주령이 내려진 사람이 자꾸늘어나
는 형편이니 그것은 한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 술값을 아끼고 아껴 한달에 한
습 아니면 두 달 석 달에 한 번쯤 카페나 클럽을
찾으란가거나 육류 안주가 없으면 술을 안 마셔야
한다거나 가정에서 여러 약술을 담가놓고 반주로
즐긴다고 하는 자기 건강법을 다각도로 실천하는 사

람이 많아진 현상에는 달갑지 않은 에고이스트의
사슬이 얹히고 설킨 것 같아 마음이 어두워진다.

고독한 여로, 고달픈 일상을 벗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미소속에서 현대문명의 찌꺼기인 스트
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건강법이 아닌가? 옛날의 주
막집은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취하기는 마
찬가지란 말처럼 속이 가난한 자는 막걸리에도 취하
는 법, 특히 백묵가루를 마시고 사는 자는 그 백묵
가루를 녹여 배설시키는 효과가 어느 고급 술보다
효력이 큰 바에야 전통적인 우리술을 파는 집에서 한
사발에 명상과 수수한 대화와 가난한 이웃들의 애환
을 담아 오늘의 마지막 만가를 띄우고 내일을 맞이
하는 터를 닦는 것은 건강을 북돋우고 건전한 사람
살이의 눈금을 재는 것이 아닌가? ※

黃吉顯 詩集

아 품 은 땅 에 서

新亞出版社

金東洙 詩集

하 나의 窓을 위하여

유 림 사

순대국집의 삼총사

朴 珍 秀 <裡里 기독교방송 기자>

어렸을때 기억되는 단골집을 회상해 보면 어감부터가 사뭇 소박한 맛과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풍겨주면서 인위적 친절이 아닌 잔잔한 인정미를 담고 반갑게 맞아주던 옛 단골집 아줌마의 모습이 떠올라 다시 찾고싶은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옛장수 가위소리가 먼 곳에서부터 짹짹 들려오는 날은 한낮에도 어둑 컴컴했던 마루밑 구석 구석을 기면서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빈병을 찾았던 국민학교 저학년 시절, 어머니 심부름으로 다녔던 단골집(점포)은 빈지문 두어개를 열어놓았으며 진열해놓은 상품도 투명한 유리그릇속에 하얀 박하사탕과 알사탕이 두어주먹 담겨져 있고 네모난 목판에는 앙꼬빵과 모찌떡 건빵등이 있었으며 까만 작은 콩나물시루에는 점포주인이 정성들여 기른 무공해 콩나물과 질그릇 옹배기 안에

는 두부 몇모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보잘것 없던 작은 점포였지만 그때 그 점포는 동네에서 제법 큰축에 들었고 군것질 하기가 귀했던 그 시절에는 그같은 점포가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점방집 아들인 친구녀석이 부럽기까지 했다. 옛장수 가위소리가 들리는 날은 그런대로 다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남몰래 꼬불쳐 감추어 놓았던 구리전선줄이라도 추겨들고 나가서 그럭저럭 입 고품을 떼웠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날은 어머니를 들볶아서 외상 군것질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그때 점포 아줌마는 장부에 적는법이 없이 장사를 했으며 기억을더듬어서 외상값을 셈했지만 계산 착오나 언짢은 언쟁 한번 오고간 일은 없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전주 K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집식구 단골집도 자연히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슈퍼마켓이다.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380가구인데 이 가운데 200가구는 중앙공급식 난방식 아파트이며 나머지 180가구는 평수도 작는데다가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 아파트이다. 그런데 한울안에 아파트가 중앙공급식 난방아파트와 연탄용 서민아파트로 구분돼 있듯이 나란히 두개있는 슈퍼마켓도 공교롭게 단골집이 구분돼서 정해져 중앙공급식 난방아파트쪽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난방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생조기와 생명태가 빠지지 않고 진열돼 있으며 연탄아파트쪽 슈퍼마켓에는 고등어와 콩치가 단골 상품이라고 한다. 나는 얼마전까지 이 아파트단지안의 연탄아파트로 이사를 해 전부터 애용하던 비난방 슈퍼마켓을 단골집으로 정해서 이용하려 했더니 난방아파트 슈퍼마켓주인이 연탄아파트쪽 슈퍼마켓을 사들여서

몇가지 정해진 품목만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세를 놓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단골집이 없어져 버렸다.

단골집은 주거지에 따라 정해지기도 하지만 직장에 따라 바뀌어 지기도 한다. 숙청기자(지금은 해직언론인이라고 예의를 해줌)라는 한을 안은채 5년을 방황하다가 연줄 연줄로 해서 전주시 송천동 서호주정 총무과장으로 취직해서 3년동안 근무했을 때는 퇴근길 출출할때는 같은 직장 동갑내기 이용주계장과 학교 후배인 이경구등 셋이 삼총사가 되어 전주종합경기장 앞에 있는 순대국집을 즐겨 찾았는데 지금은 기독교방송국의 뉴스 부활과 함께 내인생도 8년만에 기자직에 다시 복귀하는 변화를 가져와서 활동무대가 바뀌어져 지금은 멀리 떨어진 순대국집 찾기가 어려워 졌지만 이제다가 일진이 좋아서 우리 삼총사가 만나는날은 어김없이 곰보 아줌마 순대국집을 1차로 찾아가서 인생살이 넋두리와 정담을 오래도록 나누기 마련이다.

음악이 있는 찻집

송 영 자 <기린중 교사>

이집, 저집 한 낫을 헤매다가
도 맘에 맞는 물건을 못 구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버스 정류장앞
리어카 과일상마저도 단골로 좀
처럼 바꾸려하지 않는 사람과 같
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알뜰하다는 구실로 여
기저기 알아볼 것, 알아보고 비교
해보며 물건을 구입하는 나는
'비싼 것 같으면 바꾸지 그러
냐'며 국수주의자 같다고 놀려
댄다.

결혼전,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
고 살 물건의 종류가 별반 많지
않아 옷 한벌을 사려고 토요일 오
후를 온통 쏘다녀도 좋았다. 구경,
그 자체만으로도 안목을 넓히며
보냈다는 핑계도 시간의 흐름을
자위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살
것이 하나, 둘이 아니어서 부엌
휴지통이 하루 저녁이면 수북이
숫아나곤 한다.

시장을 자주가기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 가까운 아파트 상가를
애용하는데 처음에는 물건 값이
비싸고, 팔다 남은 것을 파는가
하여 망설이며 들어서던 것이 횡
수를 거듭하면서 민음이 생기고
친근해져 단골이 되었다. 더욱이
한 묶음 담아주고 몇개 더 집어
주면 단골에게 덤으로 집어주는
인심쯤으로 받아들여 기분이 좋
고 '아기 잘크냐'는 인사에 이
웃같은 친근감으로 '이걸 어떻
게 먹으면 좋으냐?'고 묻기도
한다.

매일 매일 장을 볼 수 없는 나
는 일주일에 하루쯤은 큰 시장에
도시락 찬감이랑 찌게감을 사러
간다. 가까운 모래네 시장에서 버
스를 내리면 발밑에서 부터 늘어
선 노점상들의 물건을 둘러보며
무엇이 좋을지 건주어본다. '어
떤 무어를 좋다고 하나?' '어

뎌 배추를 사야 잘 샀다고 할까?' 생각하며 기웃거리는데 막상 사례면 자신이 없어 주인얼굴 보고 사는 일이 허다하니 친절 어머니는 '돈 퍼다 주고온다'고 한마디 하신다.

어느날 찌개 거리를 사려고 생선가게를 둘러보며 물건보고 주인보며 어디서 살까 망설이는데 술 꽤나 자실 것 같고 젊은 며느리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짙짙한 할머니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인상은 그렇건만 할머니가 장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정과 '할머니'라는 어휘가 주는 한국적인 인정과 순박함 때문에 그 가게에 들어섰다.

그런데, 말수가 적는데다 차가운 인상도 호감이라기 보다는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데, 수고 하시라는 내 인사에 대꾸 한마디 안해주는 그 가게를 나설때면 웬지 내 쪽이 아쉬운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 또, 그 할머니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다. 아마도 무뚝뚝하고 차갑지만 오히려 진솔하다는 믿음이 손님을 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든다.

지난 겨울, 물가가 사정없이 오르던 때다. 시내에서 볼일을 보

고 중앙시장에 들렀는데 모든 시장의 물건값이 올랐으려면 여기가 더 비싼 것 아닌가하여 살듯 살듯 마음먹다 돌아나오고 말았다. 묻고 흥정하는 것도 지치고 짜증나 아예 단골집을 찾아갔다.

나는 단골집을 정하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 4년째 드나드는 찻집이 있다. 고평의 자화상이 걸린 찻집으로 고평같은 자아의식을 금지삼던 학창시절, 좋고 싫고가 없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다 우리 부부의 만남터, 애기터가 되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매듭을 짓고나서는 찻집을 찾을 일도 적어졌고 혹 시내에서 만날 일이 있을 때에도 나는 새로 단장한 세련되고 고급스런 다방을 떠올려보지만 단골집을 쉽게 잊지 못하는 그이에게 나의 변덕스러움을 보이기 싫어 또, 그곳에서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다.

변화를 좋아하고 다양한 구경 거리를 원하는 내게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단골집이 있다. 그곳은 몹시 화가 난다거나 복잡한 문제로 조용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때면 찾아가는 음악있는 찻집으로 커피 한잔 놓고 편안한 자세로 생각에 잠기면 격렬하던 감정도 수그러들고 복잡하던 머

리도 정리되어 한결 가벼워진다.
이렇게 익숙하다보니 여자 혼자 있어도 눈치보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다소라도 정신적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맛에 나

는 오직 나만의 단골집을 찾아가는데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유로 단골집을 찾아가는 가보다.

카타리의 추억

李 化 郁 <世大建設(株) 理事>

십 수 년전 일이다. 같은 직장
에 근무하던 K라는 친구가 있었다.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에 차분한 성격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타입이다. 그런데 하루는 초죽음이 되어 허둥대며 상의할 일이 있단다. 사연인즉 단골로 다니던 이발소 면도사 아가씨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사흘이 멀다하고 다니는 이발소행에 의심을 품은 안방 마님에 의해 들통이 났고 급기야는 수면제 소동으로 까지 발전되었으니 어찌면 좋으냐는 것이다. 결과는 좋도록 수습이 되었지만 단골집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 하기가 년전에도 근무하기 이틀 데 없는 저명인사가 단골로 다

니던 다방 마담과 문제가 생겨 사회문제로 까지 발전한 일도 있었듯이 처음에는 늘 정해놓고 거래하는 관계에 불과하지만 물건이 좋아서 술맛이 차맛이 분위기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정 때문에 단골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좋은 관계로 시작하여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는 단골집 자주 다니다 폐가 망신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개가 남녀간의 문제로 한번 이런 사건에 휘말려 본 사람은 단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 떨어질 일이지만 나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단골집에 얹힌 추억이 있다.